

면방에서 만들어내는 남자의 멋진 셔츠지 소재에서

패션 아이템(fashion item)에 있어서 ‘좋은 소재’는 뺄 수 없는 요소가 되어 있다. 특히 멘즈(men's)에서는 소재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 이유는, 좋은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지만, 좋은 소재는 실제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느끼는 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소재가 엮어내는 어떤 종류의 스토리나 그러한 세계를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자의 멋’에는 지성(知性)이 있어야 한다. ‘진짜’를 알아 낼 수 있는 남자만이, 참된 멋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진짜의 좋은 맛을 만들어내는 면방 소재 메이커의 셔츠지(shirts地)를 소개한다.

멘즈 웨어(men's wear)에 있어서, 셔츠는 가장 중요한 아이템 중의 하나이다. 셔츠에 따라서 한 벌의 슈트(suits : 정식 양복 상하 한 벌)를 여러 표정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 몇 해 사이에 제품 가격이 떨어지는 등으로 시장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백화점 루트(route)가 어려워졌다. 가장 큰 셔츠 어패럴 메이커였던 도미야 어패럴이 파탄(破綻)난 것은 그들의 어려움을 상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셔츠감 사업을 하고 있는 면방적은, 이제까지보다도 훨씬 더 확고한 유통과 소매와의 제휴를 찾고 있다.

◦ 도요보·스페셜티즈 트레이딩은 2009년 추동절에, 계속 독자적인 기능 원사를 사용한 기능 셔츠감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2009년 춘하절에도 통기 컨트롤 소재(通氣 control 素材)인 ‘무브 에어’가 호평을 받았다. 다른 한편으로 품질이나 수요가 안정되어 있는 정번품의 선염이나 위생복과 같은 흰색 옷은 모두 해외 생산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가 되고 있다.

특히 타이 에라완 텍스타일의 백색 도비 소재 생산 구조(白色 dobby 素材 生産 構造)를 다시 구축하는 데에 힘을 쓰고 있다. 선염은 유니티카계 방직의 유니텍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있다. 또한 큰 교외점과의 타이 업(tie up)도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닛신보 텍스타일은 2009년 추동절부터 노아이론 성능을 갖춘 면 100% 신소재를 일부 고객에게 먼저 판매하였다. 장기인 수지 플러스 액체 암모니아 가공(樹脂 plus 液體 ammonia 加工)에 특수 가공까지 덧붙여줌으로써 셀룰로스를 개질한 소재이다. 그리고 나서 상품화되어 있는 ‘논 케어(non care)’를 정번 존(定番 zone) 다음의 존으로 판매해 나갈 전략이다. 방오(防汚) 가공인 ‘듀얼 클린(Dual Clean) III’도 한 때 식었던 인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정번품은 인도네시아의 니카와 텍스타일 인터스트리의 방직과 기스 텍스 닛신보 인도네시아의 가공을 활용한 흰색 소재, 그리고 중국 협력 공장에서의 선염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인도에 발도만과의 합판(合辦)으로 셔츠 봉제 회사 발도만 닛신보 가먼트를 설립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이 제품을 구미로 판매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 시키보는 전략 소재 ‘듀얼 액션(Dual Action)’이 멘즈 용도로 평가가 좋아지고 있다. 면직물답지 않을 만큼 깨끗한 생지 표정이나 경량성의 호평을 살려 재킷감이나 세트를 맞추기 위한 용도로 수요가 넓어지고 있다.

듀얼 액션은 특수한 정방 교연사를 사용함으로써 잔털이 적고, 깨끗한 생지 표면이 특징이다. 그래서 아우터(outer) 분야로도 수요가 넓어져 왔다. 지금 114수 2합연사급(2合撚絲級) 면사와 폴리우레탄의 교직에 의한 스트레치 버전(stretch version)이 재킷감으로서 호평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 신(business scene)이 캐주얼화(casual化)한 것을 배경으로 앞으로도 면재킷의 시장을 늘려나가게 될 것이란 생각으로 계속 재킷 용도로 듀얼 액션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아우터 분야에서는 기능 소재의 니즈(needs)도 여전히 높으므로, 듀얼 액션에 특수한 불소 수지 가공(弗素 樹脂 加工)을 한 면 100% 방수 통기 소재(防水 通氣 素材) ‘뮤막스(μ max)’에 힘을 쓰고 있다. 단순한 기능성의 경쟁에서는 합섬의 투습 방수 소재(透濕 防水 素材)만 못하므로, 투습 방수 소재에 없는 통기성을 앞세워 타운 캐주얼(town casual)로 제안하고 있다. 그 외에, 2008년부터 듀얼 액션의 니트 버전도 준비하고 있다. 실은 시키보의 최고급 면사 ‘소라리아’ 실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멘즈 용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10년 춘하절에 대하여는 인도네시아의 자회사인 멜 텍스에서 생산한 100수 2합연사

(2合撚絲)를 사용할 계획이다. 특수 기능 폴리에스터를 사용하는 등 신규 상재(商材)를 적극적으로 제안할 생각이다. 흡한 속건(吸汗 速乾)이나 방오 등은 새로 앞세울 특성이 될 것이다. 멜텍스의 공급 능력과 일본 국내의 직포(織布)·염색(染色) 자회사인 시키보 고난(江南)의 기술력의 융합을 더욱 중요시할 것이다.

◦ 다이와보노이는 2009년 추동절을 위하여는 선염의 고밀도 직물을 제안하고 있다. 면 100% 뿐만이 아니라 필라멘트와의 교직도 부인용으로 생산하고 있다. 선염으로서 고급감이 있는 코트지(coat 地)가 되었다.

합섬과의 짜맞춤에서는 스트레치성(stretch性)도 있다. T-400을 원사로 사용한 소재는 재킷이나 팬츠(pants)용 감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30수 단사 클래스(30手 單絲 class)가 아니라 40수 단사, 50수 단사의 실로서 합섬과의 교직도 내놓고 있다. 가볍고, 얇은 소재를 원하는 니즈(needs)에 알맞은 것이다.

워시 가공(wash 加工)도 인기가 있다. 벤타일(ventile : 2차대전시 해상 근무자용으로 장섬유로 방수성이 좋게 개발한 고밀도 직물)의 60수 2합연사에 워시 가공을 함으로써 고상한 캐주얼감이 있는 코트지(coat地)가 되었다. 2010년 춘하절용으로는 모던(modern)과 내추럴(natural)을 테마로 하고 있다. 모던은 합섬과 짜맞춤으로써 가볍고 얇게 만들었다. 촉감이 좀 드라이(dry)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워시 가공도 계속 제안하고 있다.

내추럴은 페이퍼 얀(paper yarn) ‘OJO + (오조 플러스)’를 사용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2009년 2월의 프리미어 비전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또한 오가닉 코튼(organic cotton)에 환경 배려형의 발수 가공 ‘에코 프루프(Eco proof)’를 처리한 것도 제안할 것이다.

면방 각사들은 모두 이제까지보다도 더 교외점 등과 같은 큰 소매와의 제휴를 찾고 있다. 백화점 루트(route)가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로 교외점 같은 데가 소재를 주목한 신상품 만들기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소재 메이커에 대하여 모노폴리(monopoly : 獨占)적인 소재 개발의 제안을 요구하는 소리도 강해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교외점을 대상으로 한 레이디스 셔츠지(ladies shirts地)나 블라우스 지(blouse 地)도 중요하며, 해마다 판매량이 늘고 있다. 이 분야는 멘즈 이상으로 촉감이나 드레이프성(drape性) 등 생지의 감성적 가치(感性的 價値)가 중요시되는 만큼, 일본의 소재 메이커에

계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